



강원도

팽나무

## 몇 번의 화재에도 살아남은 팽나무

|                                                                                     |      |          |                                                                                     |                   |
|-------------------------------------------------------------------------------------|------|----------|-------------------------------------------------------------------------------------|-------------------|
|  | 지정번호 | 강원-고성-10 |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
|                                                                                     | 지정년도 | 2008     |                                                                                     | 냉천리 35            |
|                                                                                     | 관리기관 | 고성       |                                                                                     | 38° 24' 09.72" N  |
|                                                                                     | 수령   | 360년     |                                                                                     | 128° 22' 45.70" E |
|                                                                                     | 수고   | 15m      |                                                                                     |                   |
|                                                                                     | 흉고둘레 | 4.4m     |                                                                                     |                   |

사찰 건봉사 입구에 자라는 보호수(강원-고성-10) 팽나무는 몇 번의 화재로 대가람이 전소될 때도 살아남은 나무이다. 고성의 건봉사는 금강산에 속한 사찰이며, 이름이 있는 명소이다. 신라 법흥왕 7년(서기 520)에 지어진 사찰이라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조선 세조 10년에는 왕실의 후원 사찰로 지정을 받았을 정도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건봉사는 3,183칸이 1878년 4월 3일 산불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6·25한국전쟁 당시에도 큰불을 피하지 못하였다. 팽나무의 나이는 360년(지자체 행정기록 중심 추산)으로 추정되지만 마을 사람들은 50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표지판의 나무 나이도 500년이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 둘레는 44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2.5m 높이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졌다. 하나의 굵은 가지 줄기는 거의 곧게 위로 향하고 높이 4m 정도에서 3갈래로 갈라졌으며, 다른 가지 줄기는 옆으로 뻗은 후 높이 3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위로 향하고 있다. 가지 끝이

말라 죽은 것이 있으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팽나무는 개울가와 건봉사의 불이문不二門 사이에 서 있다. 불이문 옆에 자란다는 표현이 더 알맞다. 불이문은 진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이다. 불이문은 건봉사의 출입문인데, 팽나무와 함께 6·25한국전쟁 때의 화마에도 불에 타지 않은 유일한 건물이다. 팽나무와 불이문이 불을 피해 간 것은 건물 기초석에 새겨져 있는 금강저(불교의식에 사용하는 용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금강저가 수호의 기능을 하여 불이문과 그 옆의 팽나무를 지켜내었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에 팽나무가 불이문을 지켜준 것으로 믿고 있다. 팽나무는 우리 민족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나무이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추앙을 받아왔다. 이곳의 팽나무는 한자 이름이 박수朴樹이다. 마을의 당산목에서 굿을 하는 남자무당을 박수무당이라 한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어주는 당산목이고, 건봉사 상징목이다.